

AUTHOR 김덕복

TITLE 경제사상적인 측면에서 본 M.Luther의  
공정 가격론

IN 교회문제연구소

vol. 5 (October, 1986): 245-256

# 경제사상적인 측면에서 본 M. Luther의 공정 가격론

김 덕 복\*

## 1. 머리말

종교개혁자 존 칼빈(J. Calvin)의 경제 사상이 독일의 경제 사회 학자 막스 베버(M. Weber)의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I)이란 저서를 통하여 잘 알려진 반면, 마틴 루터(M. Luther)의 경제 사상은 그의 탄생 500 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의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경제 학이 18세기 중엽에 겨우 성립되었고 그 이전의 경제학은 독립된 하

\*오스트리아 빈대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 전공, 1983년 현지에서 목사 안수, 1984년 비엔나 한인교회 사무, 공산권 선교 센터 설립 운영.

나의 학문적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초경제적(Meta-Ökonomisch)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사상을 다루는 학자들의 관심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간혹 사회 사상을 다루는 학자들 사이에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를 중심한 중세의 로마 교회 법학자들의 어두운 사상적 그늘 속에 머무는 것같이 인식되어 왔었다.

슈페트(J. Schumpeter), 아쉬레이(W. J. Ashley) 같은 경제학자들은 그 연구의 폭을 넓혀 경제사에 있어서 18세기란 고정 관념인 시각적 벽을 깨고 그 이전, 특히 중세 경제 사상을 상세히 취급하면서도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같이 마틴 루터의 경제 사상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무시되었든지 아니면 취급되었다 하더라도 중세 로마 교회 법학자들의 경제 이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면 과연 마틴 루터의 경제 사상이 중세 로마 교회 법학자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사상이 근세 경제 사상의 전개 과정에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중상주의(Merkantilismus)를 비롯한 근세 경제 사상사의 전개 과정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경제 사상사적 의의를 그의 공정 가격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중세의 공정 가격 이론을 법정 가격=공정 가격(Gesetzliche Preis=Gerecht Preis), 시장가격=공정가격(Markt Preis=Gerecht Preis)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에 마틴 루터의 사상과 중세의 교회 법학자들의 사상과 비교 논하고 그의 사상이 지닌 경제 사상사적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 2. 중세의 공정 가격 이론

### (1) 상업 및 직분에 대한 일반적 견해

중세의 교회 법학자들이나 교부들은 모두가 그 시대의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들을 고수하고 심지어는 상행위의 필요성까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장사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중세 초기의 교회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막대한 부의 소유와 사회의 변천에 따른 도시의 성장과 시장들이 발전함에 따라 상거래의 급속한 증가는 교회 교리와 현실과의 사이에 엄청난 간격을 만들고 말았다.

더우기 12세기 이후에 와서는 활발한 로마법 연구의 시작이 교회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교회 법학자들은 스스로 상업과 직분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로마법 연구학자들과 맞서게 되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는 상행위에 있어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모두 각자의 최대 이익을 얻는 선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비록 그의 직분관에 있어서 상업을 최하위에 두기는 했지만 상거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어떠한 장소에서 폭리로 거래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상인들의 조작에 의해서 다른 여러 곳에 확산되어진다면 많은 소비자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하면서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이 취하는 이익은 단지 상인 자신의 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리고 국가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당하다고 했다.

### (2) 공정 가격 이론

상거래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이룩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정한

거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많은 교회 법 학자들의 다양한 공정 가격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의 이론들을 공정 가격이 형성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어 본다면 국가입법자, 국왕에 의해서 입법화된 법정 가격 (Gesetzliche Preis)을 공정 가격 (Gerecht Preis)이라는 견해와 독점 없는 시장에 있어서 자유롭게 성립된 가격, 즉 시장 가격 (Markt Preis)을 공정 가격 (Gerecht Preis)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법정 가격과 시장 가격을 모두 공정 가격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중세 공정 가격을 법정 가격 = 공정 가격과 시장 가격 = 공정 가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 ① 법정 가격 = 공정 가격이란 설

이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랑겐스타인 (H. Langenstein), 게르손 (J. Gerson), 비엘 (G. Biel) 등을 들 수 있다.

랑겐스타인은 군주가 공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가격은 상인과 노동자가 그 수고에 비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최저 임금)과 일반 서민들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때 원하는 정도보다 조금 높은 가격(최저 가격)의 중간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장소,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게르손은 법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바르게 결정하여야만 한다고 하면서 법정 가격 이하가 될 경우 판매자는 팔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이 될 경우 구매자는 사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원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만 한다면서 “인간은 여러 가지 타락된 더러운 욕망 때문에 특별히 이해 관계가 얽힌 공정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 가격은 어떤 당대의 현인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평균선에서 결정

되어야 하며 국가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이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은 상거래 당사자들이 공정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단지 군주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군주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 그 상품의 효용 가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군주와 국가 기관이 공정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명목론자 (Nominalist)들이었다. 그들은 보편 개념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개물로부터 추상화된 단순한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것이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세속적인 주권을 강조하므로 결국 교회가 경제 활동까지도 포함한 기구라는 종래의 개념을 파괴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물을 파악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성으로써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성과 의지를 구별하고 이 의지를 중요시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윤리의 기초를 찾는 것을 부정하고 법을 의지의 소산이라고 보는 관념을 따라 실정법이 자연법보다 더 의의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거래에 있어서 실정법에 의해서 법제화된 것만을 결국 공정 가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명목론자들의 주장이 중세 교회에 대하여 하나의 반동적인 도전이었으며 또한 그 세력이 막강하여 일반 민중들 속에도 깊숙이 퍼져 있었다. 이러한 사회 사상이 중세 민중 운동으로 연결되어진 종교 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의 사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입법 가격이 공정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공정 가격의 구성 요인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랑겐스타인은 생산비설을 빌은 효용가치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그들

을 나누어 버린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 ② 시장 가격 = 공정 가격이란 설

이 입장을 취한 대표자는 중세의 유명한 교회법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이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상인이 기근에 시달리는 어떤 지방에 곡물을 판다면 이 상인은 현행의 가격에서 그것을 그 지방에서 팔 수 있을 것인가 묻고, 구매자들이 좀더 기다린다면 같은 출하자가 시장에 나옴으로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게 될 것임을 상인들은 구매자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가?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이런 경우 현행 시장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세속 당국은 상품의 중량, 단위 등 구매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가격을 장소와 시간이 알맞게 결정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이와같이 시장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장 가격은 몇 가지 한계를 두고 연구되어야만 한다. 그는 시장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하여 상당히 염려하며 판매 가격이 구입 적정 가격을 상회하여 거래될 때 상인들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상인의 이익은 그것이 어디까지나 그들의 노력에 의한 적절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 계산은 상인과 생산자의 노동, 거래상의 위험 부담, 수송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외의 지나친 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상도의상 피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의 공정 가격 구성 요인은 “모든 재화는 인간의 욕망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함으로써 효용설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그가 주장한 그 효용설이 현대적인 것과는 판이하게 그 이론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가 살았던 사회는 결코 개인의 효용을 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효용은 단지 가능

적 사회의 현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 이해되어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효용이나 필요는 그 사람의 지위에 알맞는 생산비를 탄명한 것이 된다. 그는 “만약 생산자가 판매에 있어서 스스로의 생산비를 찾지 못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시장 가격은 결코 생산비를 하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시장 가격은 생산비와 일치하도록 정해야 하며 시계의 추처럼 일정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효용설은 생산비와 함께 이해되어야만 할 줄 믿는다.

## 3. 마틴 루터의 공정 가격론

중세 후기에 이르러 상거래에 있어서 발전은 눈부실 정도였고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학설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고 대부분의 상거래에선 실제적인 위력을 상실해 가고 있을 때 1524년 9월 마틴 루터는 ‘상행위와 폭리에 대하여’(Von Kaufs-handlung und Wucher)란 글을 통하여 공정 가격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루터가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는 것은 “세속의 정부 당국은 상품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전문가를 책임자로 임명하여 모든 상품에 적절한 가격을 정하고 상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또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므로 전자는 최선의 공정 가격이며 후자는 차선의 공정 가격으로 주장한 셈이다.

### (1) 법정 가격과 시장 가격에 대한 그의 견해

공정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루터는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세속 정부의 적극적인 결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아서 그는 명백하게 명목론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상품은 가능하면 비싸게 팔고 싶다는 것이며 이웃에 대한 피해나 손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세속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이미 자본주의 자유 경쟁의 사회가 도래하기도 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미래의 경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속 정부가 강력히 경제 사회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 이론을 이미 450여년 전에 주장한 셈이다. 적극적인 세속 정부의 가격 결정을 주장하면서도 그는 덧붙여 상인들의 무리한 이익 추구가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원래 상행위는 이웃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양심에 따른 상행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법정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면서도 그는 차선의 방법으로 시장 가격을 또한 공정 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상품과 비용에 대하여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위험 부담이 시장 그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따라서 과도한 이익이 경우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루터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재화가 지닌 본성은 한결같이 위험과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지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인이나 회사가 독점 가격을 조작한다면 제후나 영주들은 이것을 강력히 제지해야 하며, 시장에 있어서 상인들의 위험 부담의 상존성 때문에 시장 가격을 공정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이나 위험의 부담을 이윤 추구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이윤 추구를 당연한 것으로 제한 없는 이윤 추구로 상거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 (2) 공정 가격의 기초

루터는 세속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를 주장했으며, 그것은 소위 그의 '두 왕국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영적 통치 (das geistliche Regiment)와 인간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세속적 통치 (das weltliche Regiment), 이 둘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세속적 통치는 정부, 이성, 법률가에 위임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의와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세속 권력은 신앙에 대해선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영적 통치 기구와 세속 통치 기구 간의 상호 불간섭 원칙을 밝힘으로 종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묘한 경제 활동에 쉼표를 박았다. 루터는 세속통치 기구는 율법과 산상수훈에 따르지 않고 자연법에 의존하여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에 있어서 자연법이란 "이성적 피조물에 있어서 영구법도 아니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 속에 있어야 할 질서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마태복음 7:12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 (3) 생산비의 구성 요인

루터에 의하면 세속 정부에 의한 법정 가격으로도 시장 가격으로도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품의 가격은 "스스로의 신분에 따르는 생계비 이상의 것은 거래에서 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자신의 비용, 노력, 노동,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엄밀한 기준은 사실상 없으며 별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것을 그냥 나눌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같이 루터는 자신의 신분에 상응하는 소득을 주장한 점에 있어서 중세의 계층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무제한한 이윤 추구

를 부정했다. 그리고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생산비를 기초로 하여 공정 가격을 산정하는 점을 볼 때 중세적 사고로부터 그의 이탈을 발견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공정 가격을 산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과 시간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송 및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계층 질서에 있어서 다른 범주에 속한 노동자가 두 사람 일을 했을 때 그 작업 분량과 노동 시간이 같다면 같은 이익을 취해야 되며 그 상품의 생산비는 같아야 한다. 루터는 한편에서는 신분에 알맞는 소득을 주장하고 무제한한 이익 추구를 경계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층 질서에 따르지 않고 노동 시간에 투하된 시간에 근거한 소득을 산정한 주장을 한 점이다. 이것은 그의 계층 질서에 관한 견해가 중세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간략하게나마 살펴본 중세의 공정 가격 이론과 마틴 루터의 공정 가격 이론을 통하여 볼 때, 그의 사상이 갖고 있는 경제 사상사적 의의라면 대략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중상주의로 통하는 문을 열어 놓았다. 루터가 말한 자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다 같이 사랑에 의한 신뢰 위에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러한 자연법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세속 통치 기구의 권한 속에 위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공정 가격은 그 종교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세속 통치 기구도 기독교의 윤리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속 통치권

자들은 무제한 국부의 증대를 추구하게 되므로 중상주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루터는 종교 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엄청난 이권을 세속 통치 기구에 넘겨 줌으로 이때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과제에서 세속적인 과제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생산비설을 주장하므로 스미스(A. Smith), 리카르도(D. Ricardo), 마르크스(K. Marx)에 영향을 끼쳤다. 종래의 학자들 사이엔 루터가 생산비설을 주장하는 일단의 학자들에게 보다 한계효용학설을 주장한 오지리 학파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자들이 간혹 있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루터가 명백히 전자에 영향을 끼쳤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효용설을 부인하고 생산비설을 주장했으며 생산비 산정 기준을 '날품팔이 노동자로 삼았고 중세 계층 질서에 위배되는 횡적 직분론과 사회분업론을 주장한 점으로 보아서 스미스의 선구자임이 확실하다. 스미스는 그 명저 「국부론」 1편 10장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후에 생산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에 직접 간접 영향을 미쳤으리라 믿어진다.

셋째, 구라파 민법과 상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종래의 교회법 안에서 이해되어 왔던 혼인, 상속, 계약, 상거래, 노동 조건 등이 루터의 세속 통치 기구의 권위 강조로 독일의 뉴른베르그(Nürnberg) 종교 개혁 과정에서 실제로 시 참사회가 로마법의 기반 위에 루터의 지지를 받아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혼인, 상속, 계약, 상거래, 노동 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하므로 구라파 민법과 상법의 효시가 되었다.

넷째, 인간성의 부패를 통하여 나타날 자유 경쟁 체제의 모순을 예견하고 강력한 통치기구의 간섭을 주장했다. 경제사상사적으로 볼 때 영리주의와 자유 경쟁을 그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므로 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모순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치 기구가 자본 시장에 관여하며 경제 전반에 참여하는 수

정 자본주의의 현상을 그는 이미 450여 년 전에 인간의 부패성을 통하여 예측했는지도 모르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경제사상사적인 의의 외에도 사회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다시 취급되어야 할 줄 믿는다.

## 의로운 전쟁론

이 일 호

### 1. 서론

점증하고 있는 핵 전쟁의 위협에 기독교신자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핵 전쟁은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신자는 두 가지 큰 방법으로 전쟁의 악에 대해 반응해 왔다. 소수의 기독교신자는 크리스찬이 결코 치명적인 폭력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믿어 왔다. 다수의 기독교신자는 '의로운 전쟁'의 측면에서, 비록 전쟁이 끔찍한 것이긴 하지만 때때로 전쟁이 두 가지 악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기독교신자